

# 소설 《상도》의 가르침, 상즉인商則人, 사람을 살려라!

박인주 월드리서치 대표이사



21세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제대로 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가치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절실하게 던져보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책은 때때로 이런 절실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보여준다. 나에게서는 최인호의 《상도》(여백)가 그런 책이었다.

나는 상도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혜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소설의 주인공 임상옥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작가 최인호가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던지는 물음과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여론조사 회사를 경영하는 나로서는 임상옥의 스승, '석승'이 임상옥에게 닥칠 세 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책을 가르쳐주는 대목을 여론조사의 관점으로 읽었는데 나름대로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임상옥에게 다가온 첫 번째 위기는 중국 연경에서 일어난 인삼가격 결정과 불매동맹 사건이다. 오늘날에는 제품의 시장가격을 정할 때 FGI 기법이나 CLT 조사기법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백년 전 임상옥이 중국 연경에서 홍삼을 판매할 때는 공시가를 내걸어 흥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었다. 소설 속 임상옥은 30냥 하던 인삼을 40냥 받겠다고 공시가를 내건다. 이에 중국 약종상들이 불매동맹을 하게 되고, 상옥은 홍삼을 하나도 팔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때 그는 홍삼을 모아 놓고, 불을 지르는 결단으로 위기를 돌파한다. 임상옥의 위기 해결 방식은 바로 사즉생의 철학이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차례 위기를 맞게 되는데, 임상옥이 그랬던 것처럼 위기 탈출의 비책으로 사즉생의 결단은 매우 큰 성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때 임상옥이 중국 상인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가격을 정했다라면, 종전 가격인 30냥만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임상옥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독과점의 홍삼 제품에 가격 차별화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소설 속에서 임상옥이 보여준 자신의 상품에 대한 확신, 시장 환경을 파악하는 놀라운 순발력, 그리고 소신과 결단력 등은 오늘날의 CEO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옥에게 닥친 두 번째 위기는 홍경래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이다. 상옥은 그 혁명에 동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한다. 물론 당시로서는 홍경래의 혁명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사업을 하는 상옥은 사업의 흥망이 어느 쪽에 가담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 여론조사 사업을 하면서 직접 느낀 것이지만 5년 단위로 치러지는 대선 시기가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묻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척 많다. 누가 당선될 것인지 묻는 사람들 중에는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에게 줄을 섰


소설 속에서 임상옥이 보여준 자신의 상품에 대한 확신,

시장 환경을 파악하는 놀라운 순발력, 그리고 소신과 결단력 등은

오늘날의 CEO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가 자신이 피해를 보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경유착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경유착이라는 네거티브 전략에는 한계가 있고 늘 리스크의 위험이 따른다. 사업가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시대의 흐름을 짚는 수완이 있어야 한다. 홍경래의 난에 직면했을 때 '술 정' 자를 통해 보여준 임상옥의 지혜는 시대적 상황의 흐름이나 오늘날 얘기하는 여론의 추이를 읽는 데 탁월했던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깊은 고뇌와 그 진지한 자세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임상옥에게 닥친 세 번째 위기는 친구 이휘저의 딸, 송이와의 사랑으로 야기된 사건이다. 홍경래의 난 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절친한 친구 이휘저의 딸 송이를 구출해 내기 위한 사랑은 결국 임상옥을 감옥까지 가게 한다. 하지만 임상옥은 계영배를 통해 그 위기에서 탈출하고 재산의 사회환원을 통해 자신의 큰 삶을 완성한다. 지난 대선시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로서의 바람직한 덕목은 참신성과 개혁성이 그 으뜸이었다. 임상옥이 평생 모은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금권으로 얼룩진 우리 정치인들의 초상을 떠올렸다. 만약 임상옥 같은 인물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내지 않을까.

사업이나 장사가 바로 사람 자체임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상즉인(商卽人), 어떤 사업이 되었든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 되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사업에는 도가 없고, 철학이 없다. 활인도(活人道), 사람을 살리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사업을 한다. 여론조사업을 하는 필자는 조선조 말기, 이백 년 전의 임상옥의 삶을 통해 투철한 벤처정신과 위기에서 더욱 빛나는 탁월한 사업가의 결단과 용기, 그리고 큰 뜻을 품는 인간의 웅대한 철학과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부지불식 간에 위기는 오기 마련이다. 욕심을 버리고, 사즉생의 자세로 진인사대천명하는 것을 이 책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박인주** 朴仁周 1950년 출생,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외과와 경북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주식회사 월드리서치 대표이사 사장과 서울 흥사단 대표, 공명선거시민실천협의회 집행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지난 16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월드리서치의 대표로 여론조사 참여를 결정해 마스크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